

**** 공공도서관의 내관자 관내 행위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도서관 건축 디자인에 관한 연구(III) 관내행위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Library Facilities by Behavior of User in Public Library Building

- A Study on the Design of Library Architecture(III) -

이상호* / Lee, Sang-Ho

공순구** / Kong, Soon-Gu

박고현*** / Park, Ko-Hyun

Abstract

Researching behavior of users in public library is very important processing and their activities can be judged with the regard of required inner spaces and related those functi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inner spaces in public library and to propose the prototype of space composition in public library of the future.

Not only the relation of space program of each library but also the network among public libraries are not connected efficiently. That's why the public library is not used as local cultural place. Usually, the organization of inner spaces has not been recognized and approached satisfactorily.

As the result of the above researching, the function of the culture facilit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open study-room which now using just for study. It will make users to recognize and approach public library easily

키워드 : 공공도서관, 내관자 탐색행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사회가 좀더 다양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문화시설 이룰데면, 도서관, 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양과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충족을 주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소요공간과 규모, 즉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문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희박하고 관례를 비판 없이 차용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어느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될 경우에 효율성이 실현될 계획수법이 필요하다. 전자정보화와 페이퍼리스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미래에는 '물리적인 도서와 도서관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전반적 정보화와 페이퍼리스화의 진전은 도서관이 시설과 서비스차원에서 시민생활에 깊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대도서관은 이용자가 문화적 행위를 행하거나 사교적 활동의 거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도서관 건설을 계획할 때에 도서관의 내관자의 탐색행위와 관내에서의 행위는 도서관의 소요공간과 기능의 연계성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므로 기본적인 각 코너의 구성을 규명하는데 이용자의 입장에 의하며 장래의 기본모형을 제시하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한정된 면적을 가진 도서관의 소요공간이 상호 연계하여 내관한 이용자의 탐색행위에 충족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성수법을 검토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시간별 이용추세 분석
- 반복이동평균법에 의한 시간별 이용상황 분석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건우사건축연구소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출도서수에 의한 시간별 이용변화의 특성
- ②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목적별, 사용공간별 분석
 - 성별, 연령별 도서관 이용의 방향성과 이동 공간 및 점유시간
 - 서울의 경우 각 공공도서관의 이용행위 변화
- ③공공도서관의 시설수용구조의 변화와 장래의 예측
 - 시설수요와 시설수요구조와 그 변화
 - 잠재수요층과 재잠재 수요층 분석
- ④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설정

2. 공공도서관의 현황

2.1.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현황

1997년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2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표 1>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1인당 장서수는 용산구와 종로구는 <표 1>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소재구	인구수	도서관명	1만명당 열람석수(석)	1인당장서수(권)	열람석(석)	장서수(권)
강남	554,858	강남	8	0.20	444	111,436
		개포	20	0.22	1,113	124,302
		소계	28	0.42	1,557	235,738
강동	489,544	강동	13	0.25	634	122,520
		고덕	23	0.25	1,141	122,598
		소계	36	0.50	1,775	245,118
강서	517,881	강서	22	0.30	1,162	159,271
구로	381,794	구로	19	0.27	720	102,576
		고척	30	0.28	1,152	108,615
		소계	49	0.55	1,872	211,191
노원	595,891	중계	19	0.19	1,134	114,328
도봉	381,602	도봉	29	0.36	1,097	137,974
동대문	378,953	동대문	29	0.50	1,109	191,800
동작	425,942	동작	14	0.19	579	82,412
마포	386,880	마포	58	0.24	2,256	92,732
서대문	366,726	서대문	37	0.35	1,340	128,703
송파	671,406	송파	27	0.12	1,800	81,622
영등포	406,019	영등포	27	0.50	1,084	201,640
양천	484,907	목동	41	0.28	2,009	136,747
용산	246,613	남산	90	1.50	2,225	377,286
		용산	81	0.78	2,014	193,710
		소계	171	2.32	4,239	570,996
종로	190,619	정독	150	1.87	2,865	357,087
		종로	54	0.88	1,028	167,733
		어린이	53	0.77	1,010	147,566
		소계	257	3.53	4,903	672,386
계	6,479,635	-	-	27,943	3,262,658	
관당평균		40	0.49	1331	155,3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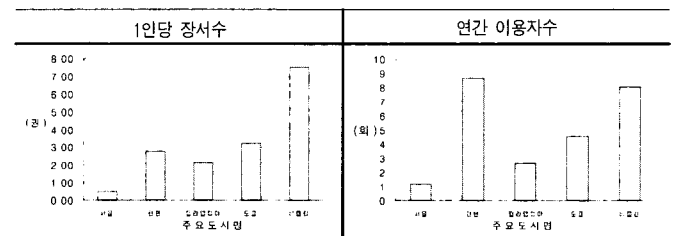
각각 2.09권과 2.9권을 소장하고 있어 IFLA의 기준에 적절하나 다른 구의 상황을 보면 1인당장서수가 0.04권에서 최대 0.47권 정도의 소장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의 평균값을 보면 1인당 장서수는 약0.49권으로 나타난다. 이는 1인당 장서수에서 IFLA의 기준인 1인당 평균

2-3권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만명당 열람석수도 그 평균값인 40석으로서 IFLA의 기준인 20-25석(봉사대상인구를 40만명기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총 25개구 중 공공도서관을 가진 구는 모두 16개 구(사립공공도서관이 있는 중구 포함)로 도서관이 없는 구가 9개 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공립도서관의 절대수 부족과 지역별 편중 분포를 시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도서관의 양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립도서관이 없는 자치구에 2000년까지 구별로 1개씩의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장서수에서 다른 국가들의 중심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도쿄나 베를린, 모스크바와 같은 도시들의 공공도서관은 2천5백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97년 현재 334만2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장서수는 0.32권정도로써 세계 주요도시중 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도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가

<표 2> 세계주요도시와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현황비교

주요도시	관수	장서수(천권)	인구(인)	1관당인구(인)	1인당장서수(권)	연간이용자수(인)	1인년간이용회수
런던(91)	386	19114	6889900	17849	2.77	59668686	8.66
베를린(92)	270	25985	3465748	12836	7.50	27914538	8.05
로마(92)	34		2829003	83206		722824	0.26
서드니(87)	153		3656543	23899		880095	0.24
시카고(90)	87	5740	2783726	31997	2.06	1667011	0.60
디트로이트(90)	63	4400	1027974	16317	4.28	3200000	3.11
LA(84)	215	4603	3071000	14284	1.50		
필라델피아(90)	54	3375	1585577	29363	2.13	4200000	2.65
도쿄(91)	194	26269	8129377	41904	3.23	37143259	4.57
요코하마(91)	17	3044	3250887	191229	0.94	5770424	1.78
오사카(93)	26	3873	2588989	99577	1.50	291074	0.11
나고야(92)	16	3188	2162007	135125	1.47	6767143	3.13
상하이(92)	31	16420	12893700	415926	1.27	7590000	0.59
타이페이(93)	33	2192	2653245	80401	0.83	6525293	2.46
싱가포르(93/94)	10	3217	2873800	287380	1.12	869957	0.30
서울(97)	25	3342	10321496	412859	0.49	12141170	1.17

<표 3> 주요도시별 장서 및 이용대비



91년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관당 인구수를 보면 런던이나LA의 경우 1관당 약 1만5천명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는 41만2859명에 달하고 있

1)서울시(1994). 도시비교통계. 서울교육통계연보(1998). '97년도 공공도서관 현황.

2)서울시(1994). 도시비교통계. 서울교육통계연보(1998). '97년도 공공도서관 현황.

다. 1인 연간이용횟수를 보면 런던이나 베를린, 도쿄와 같은 도시들에 비하면 낮은편이다. 이와같이 세계다른 주요도시와 서울의 공공도서관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중 하나는 다른 도시들의 경우 중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분관이 적절히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뛰어나고 접근성이 매우 좋아 보다 쉽게 지역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도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욕구는 연간 이용자가수가 1.17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도시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분관체계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도서관시설의 확충과 장서확보의 노력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타 도시들과 비등한 수준을 보일 수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2.2. 공공도서관 표준조사

(1)조사 개요

'98년 현재 서울시에는 총 25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입지적 특성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된 공공도서관중 4개관을 선정하여 현지 답사하고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내관자들의 탐색행위를 파악하고 관내에서의 행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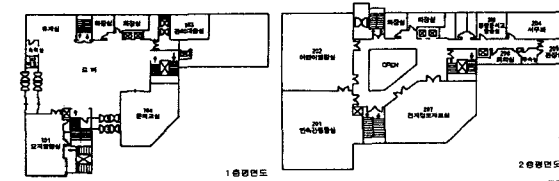
· 조사 방법

조사기간은 1999.5.21부터 1999.5.28까지 7일간이며 오전10시부터 오후2시 사이에 입관하는 내관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오후6시까지 퇴관하는 내관자들로부터 설문지를 돌려받았다. 배포한 설문지는 각 관마다 50부를 배포하여 32매를 회수하여 약 64%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각 항목의 통계처리는 각 관별로 회수된 설문지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표 15>, <표 16>, <표 17>의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한 항목이다.

(2)설문조사 대상 4개관 현황

①마포도서관

<표 4> 마포도서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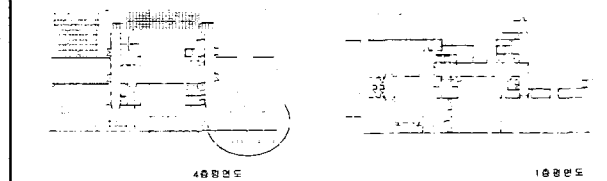
각 층 평면도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4,400㎡(1,331평) 건물 : 9,716.38㎡(2,939.2평) · 내부시설 : 5층 : 대강당, 컴퓨터실, 어학실, 예절실, 양호실 4층 : 전자정보자료실, 일반열람실, 문화교실, 토론실, 3층 :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사무실, 청소년상담실 2층 : 연속간행물실, 어린이 열람실, 일반열람실, 회의실, 사무실, 1층 : 모자열람실, 관외대출실, 시각장애인실, 열람지대기실, 전시공간 지하층 : 소강당, 체력단련장, 수영장, 매점 및 식당

마포 평생학습관은 1980년 아현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아현분관을 교육청이 인수하여 마포도서관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1995년

서교동 현 위치로 확충 이전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 정보제공, 사회교육, 문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7월 16일부터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교 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561호('99.1.16)에 의거 마포평생학습관으로 개편 운영하며 도서관의 정보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입지현황을 보면 서교초등학교의 부지에 입지하고 있다.

②송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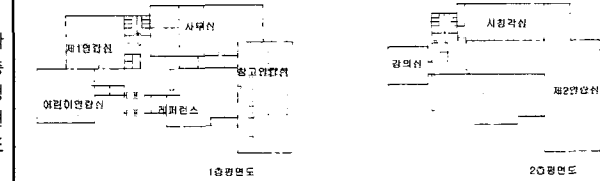
<표 5> 송파도서관의 현황

각 층 평면도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6,469.8㎡(1,957평) 건물 : 8,472㎡(2,563평) · 내부시설 : 4층 : 일반열람실1, 2, 3 3층 : 인문사회자연과학실, 일반열람실4, 서고, 청소년상담센터 2층 : 어학문학실,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일반열람실5, 휴게공간, 자료봉사과 1층 : 어린이 열람실, 모자열람실, 전시실, 관장실, 관리과, 자료봉사과, 회의실 지하층 : 강의실, 시청각실, 휴게실, 매점

송파도서관은 1994년 송파구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무상관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지방행정 자치구가 주민을 위해 발의하여 건립한 도서관으로서 아파트단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 전산화로 컴퓨터를 이용,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통하여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에 직접 희망도서를 입력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③개포도서관

<표 6> 개포도서관의 현황

각 층 평면도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10,000㎡(3,025평) 건물 : 2,377㎡(719평) · 내부시설 : 2층 : 시청각실, 제2열람실, 정기간행물 및 전자정보실, 강의실 1층 : 자료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제1열람실, 관장실, 관리과, 자료봉사과 지하층 : 식당, 매점, 휴게실, 기계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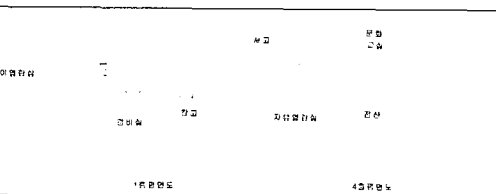
개포도서관은 1985년 대단위 APT단지가 설립되면서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된 도서관으로서 단계계획시 도서관의 입지를 결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뤄 휴식공간의 역할을 한다.

④강남도서관

강남도서관은 학교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건물규모가 조사대상4개관중 최소규모이다. 1981년 개관한 강남도서관은 대지가 협소하고

도서관 규모가 작아 개관당시와 비교하여 폭증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

<표 7> 강남도서관의 현황

각 층 평면 및 단면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1,079.1㎡(327평) 건물 : 1,558.1㎡(472평) · 내부시설 : 4층 :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 문화교실 3층 : 제2열람실, 서고 2층 : 제1열람실 1층 : 어린이열람실, 경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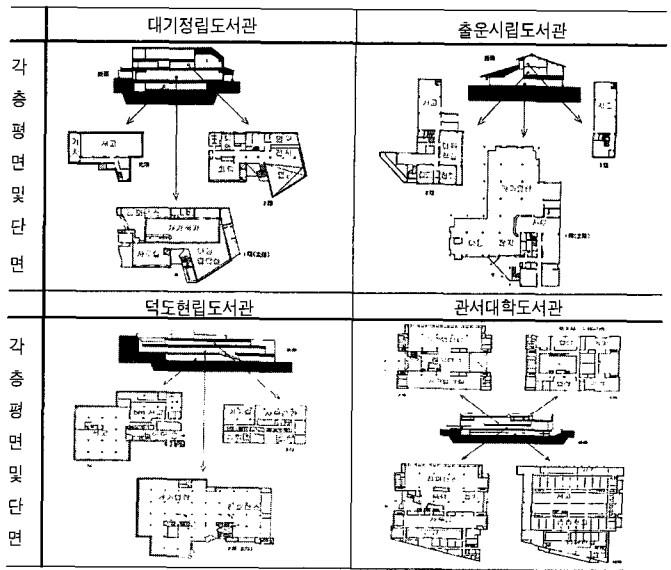
이들 4개 도서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정보화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업무가 전산화되고 도서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컴퓨터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1992년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계획'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을 직접방문하지 않더라도 소장하고 있는 도서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DB구축은 수집, 목록, 대출의 업무 부분에서는 전산화가 이루어 졌으나 이용자의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전산화된 시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³⁾ 따라서 90년대 이후 개관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마포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검색공간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열람실 내부나 열람실 출입구의 일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목록에 대한 DB서비스만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든 도서관이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의 종류가 극히 부족하고 홍보부족과 시설미비로 인해 이용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각실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좋지않아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공간구성

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각실 구성형태⁵⁾를 보면 도서관의 주된 기

<표 8>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유형



능을 갖는 열람실과 서고, 부속시설과 관리·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배치는 각기 그 시설이 갖는 기능이 뚜렷이 구별되므로 주로 각 층별로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인 배치형태를 보면 열람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층에 배치되며 서고의 경우 서적의 보존환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하층에 배치된다. 관리·업무시설은 도서관리를 유리하게 하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람실이 위치하는 층과 근접하여 배치된다. 또한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주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업무시설과 연계되어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화 된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이 다루어야 할 정보의 형태와 서비스 내용 또한 급속히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3월자로 IFLA⁶⁾에서 상정한 공공도서관 선언 개정문이 유네스코에서 승인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다.'라고 밝혀 도서관이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도서관 내관자의 관내행위

4.1. 내관자의 정보 습득방법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행위를 보면 도서관에 접근하기 위한 주된 접근수단으로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며 주로 이용하는 실로는 참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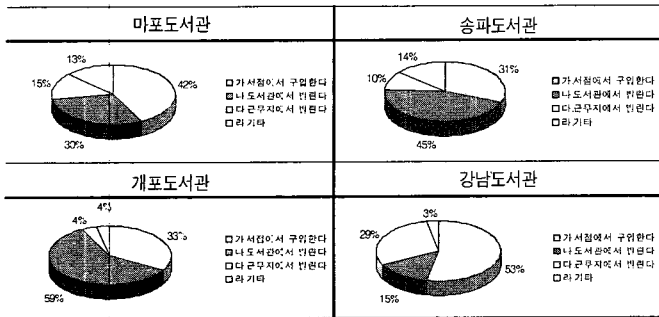
3)황창석, 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57

4)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 1999.1.21 개정

5)<표 8>栗原嘉一郎編著, 圖書館の施設と設備 (現代圖書館學講座 13), 東京書籍, 1988, pp.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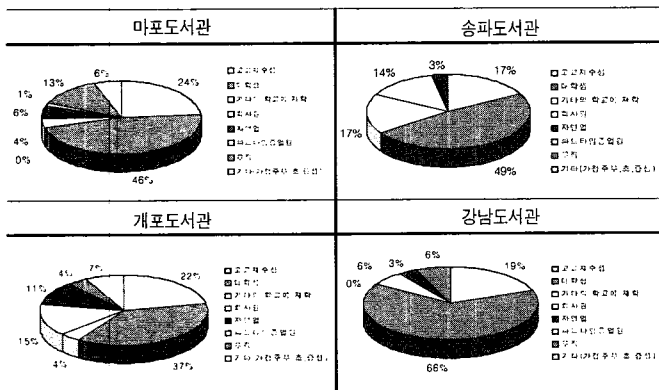
6)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람실과 자유열람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 도서관의 이용도에 관한 항목 중 '귀하는 읽고 싶은 책을 주로 어디서 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관에 <표 9> 귀하는 읽고 싶은 책을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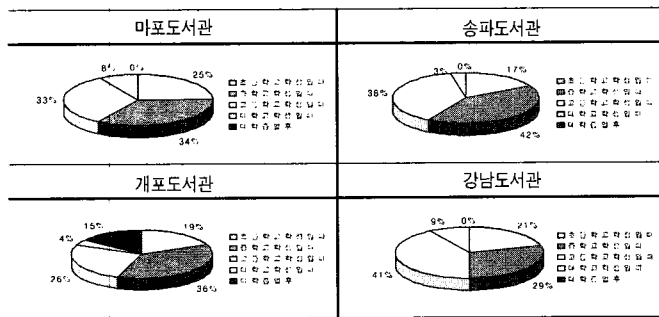


서 빌린다'는 항목이 평균37%이상을 보여 정보를 습득하는데 공공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타의 항목에서 다수의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요즈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문도서대여점의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의 거주 영역에 가까워 접근성이 유리하고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적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서적을 필요로 할 경우나 또는 학습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공간계획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내관자들의 연령이나 직업의 형태를 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 평균50%정도의

<표 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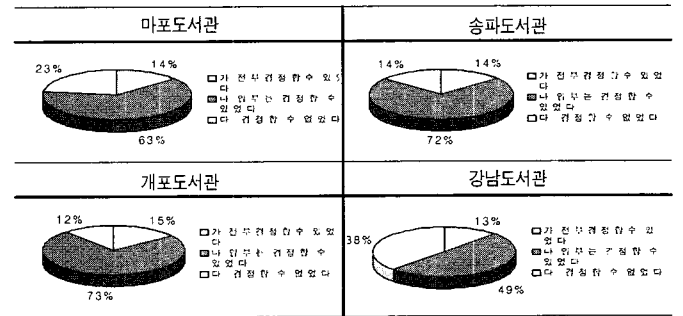


<표 11> 귀하가 처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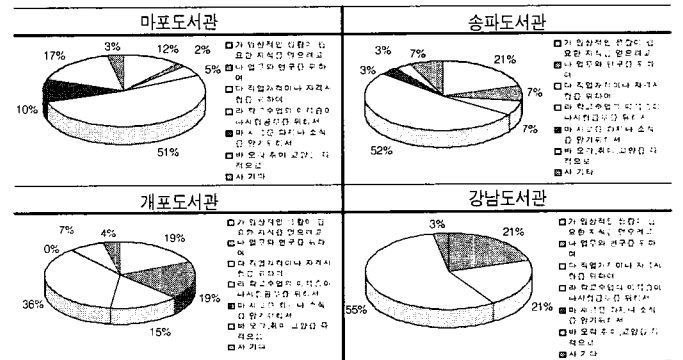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교·재수생이 20%정도의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연구와 수업준비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고교·재수생의 경우는 주로 학습과 시험준비를 위해 자유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다. <표 11>의 항목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접하게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 20%, 중학교 학생일때가 35%, 고등학교 학생일때가 35%정도를 나타내어 학교를 통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도서관을 접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귀하는 오늘 필요한 도서를 미리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표 12>는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지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해 본 내용으로서 이는 도서관에 처음 들어서서 내관자가 행하게 되는 자료의 위치 탐색을 위한 자료검색실의 규모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평균 78%이상 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결정하고 도서관을 내관함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고 현재 서울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한 서지정보검색 시스템을 운영중임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내관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83%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도서제공에 관한 서비스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충족한 서비스를 위해 도서를 무한히 소장할 수는 없으므로 도서관정보전산망을 통해 각 도서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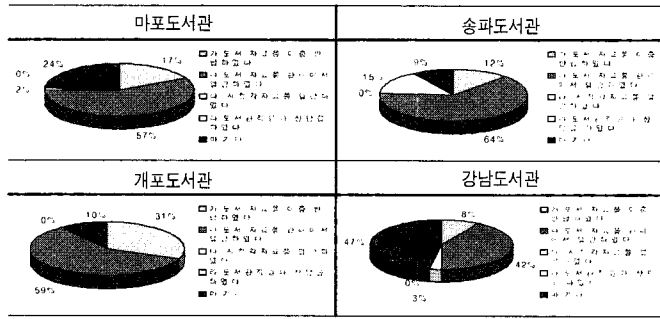
<표 13> 귀하가 도서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4.2. 내관자의 안내행위

(1) 도서관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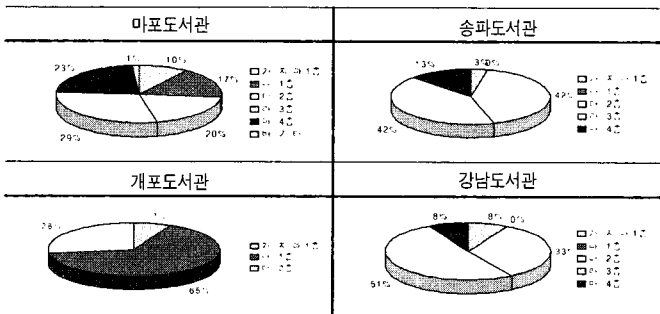
<표 14> 귀하는 오늘 도서관에 오셔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



99년 현재의 공공도서관 내관자의 도서관 이용형태를 보면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주된 목적이 학교수업의 예·복습이나 시험공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평균48%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이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이 그 근본목적인 데 반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무료 학습실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의 근본 설립목적에는 저해될 수 있으나 반면에 도서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잘 이용하면 현재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열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4>에서 오락·교양·취미를 목적으로 한 응답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는 응답자도 다수로 분포하고 있어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 내관자의 도서관 이용행위

<표 15> 귀하가 오늘 도서관에 오셔서 이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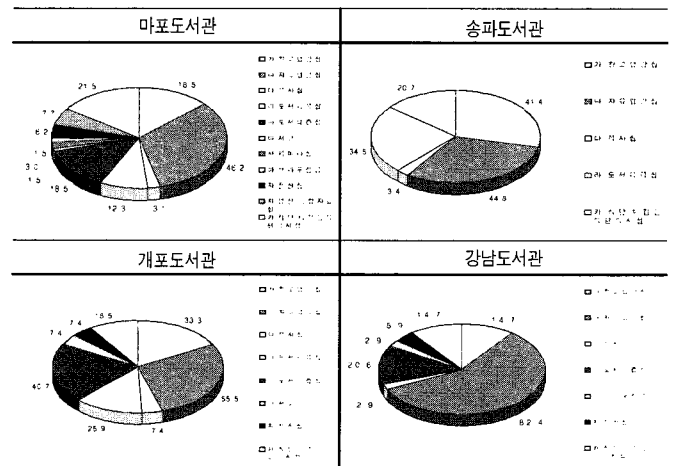


<표 15>의 내용을 보면 내관자가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일어나는 행위는 평균55%이상 열람실에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중복응답이었다. 다음으로 도서·자료를 대출·반납한 경우가 17%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이 23%인데 여기서 기타 항목은 자신을 위한 학습을 한 경우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서 이 중복응답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한가지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필요한 도서를 대출·반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 이후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학습을 하

가 참고열람실에 들어서 도서·자료를 열람한다. 이는 <표 14>에서 내관자의 48%가 학교수업의 예·복습이나 시험공부를 위해서 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주된 이용목적이 자신을 위한 학습이라 하더라도 이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 내관한다기 보다는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즉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거나 대출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문화·교양프로그램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도서관이 학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보다는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관자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학습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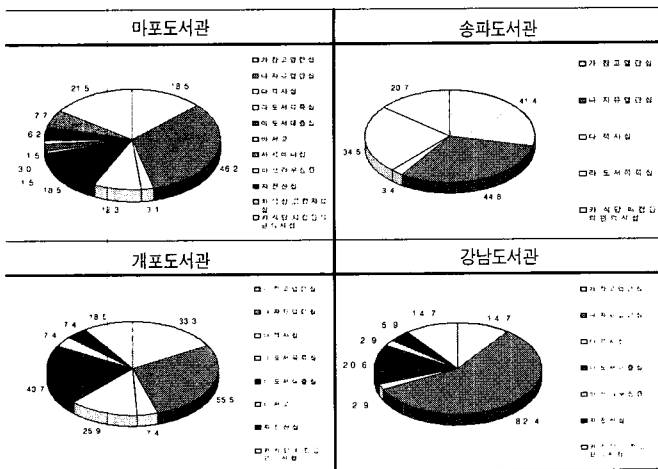
4.3. 각 실별 이용현황

<표 16> 귀하가 오늘 도서관에서 이용한 시설은 어디입니까?



도서관내관자가 주로 이용하는 각 실별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각 층별 배치에 따른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마포도서관의 경우 5층을 제외한 다른 층들은 고른 이용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표 17>에서 보면 주된 이용실은 참고열람실과 자유열람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마포도서관은 내관자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참고열람실과 자유열람실이 각층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그 이외의 정보이용공간 즉 전자정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문화교실, 관외대출실, 열람자대기실 등이 각층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수가 층별로 적절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극히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5층의 경우 컴퓨터실, 예절실, 어학실등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이는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그와 동시에 접근성과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관자들이 주로 이용하려 하는 일반열람실을 소규모라도 배치하여 이

<표 17> 귀하가 오늘 도서관에서 이용한 시설은 어디입니까?



들 공간을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 방법이 제안된다. 다음으로 식당 및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각 도서관의 부대시설로서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이는 공간이 식당 및 편의시설인데 이는 장시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이번 설문에서 내관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 중 인터넷 검색을 위한 전산실의 요구 다음으로 식당 및 매점, 휴게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확충이었다.

5. 결론

과거의 공공도서관은, 그 근본 설립목적이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에 있었고, 근래에는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이 요구하는 적절한 장서수를 보유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하지 못하여 단순히 중·고·대학생을 위한 학습실의 역할을 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도서관정보전산망의 도입과 더불어 도서관 스스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이제 점차 공공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려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발전에 보다 정밀한 이용자의 탐색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적절히 도서관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내관자들의 탐색행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내관자들의 정보탐색행위가 전산망을 통해 도서정보를 획득하고 디지털화된 정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해짐으로 이에 따른 도서관내 전자정보검색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이러한 정보검색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시설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의 열람공간과 정보검색공간이 오픈스페이스로서 하나의 공간에 위치하는 것

을 제안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입관하는 시간대는 오전11-1시 사이로서 입관후 5-6시간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이들의 열람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은 반드시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열람공간계획 이후 편의시설을 따로 계획하나 이보다는 열람공간계획과 동시에 계획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다른 열람자의 열람행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는 층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문화교실, 시청각실, 강의실등의 평생교육시설이 현재 배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홍보하고 이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건축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내관자들의 50%이상이 이용하는 일반열람실과 근접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인지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요구된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면적이 부족하여 모든시설이 동일층에 배치될 수 없고 대규모의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는 기능별로 수직적인 층의 구분으로 각 실들이 계획된다. 그러나 이렇게 기능별로 층을 구별하는 것은 아직은 열람공간을 자신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열람실이 배치된 층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다른 문화·교육시설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습실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하나의 층에 집중 배치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분할하여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공 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 협회, 1986
2. 栗原嘉一郎編著, 圖書館の施設と設備 (現代圖書館學講座 13), 東京書籍, 1988
3. Nicholas L. Moo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89
4. 헨리 시 캠벨, 공공도서관개발론, 구미무역출판부, 1990
5. Bob Usherwood,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1996
6. 이상호, 대학도서관의 시스템구성과 적정규모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론, 1991
7. 황창석, 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론, 1997
8. 신현수, 정보환경조건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8
9. 정일민, 공공도서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론, 1995
10. 최신영,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 석론, 1998
11. 국립중앙도서관 편, 외국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논의 실태, 국립중앙도서관, 1998
12. 한국도서관협회 편,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91
13. 國立中央圖書館 편, 文化센터로서의 公共圖書館의 役割, 1992
14. 한국도서관협회 편,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92

<접수 : 1999. 10. 29>